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믿고 기다림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인 ‘조장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조장 助長’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성미가 급한 농부가 있었는데, 눈에 심은 벼가 천천히 자라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어느 세월에도 저것들이 다 자라려나’ 싶어 조바심이 난 농부는, 벼를 하나하나 쑥쑥 뽑아 올린 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가서 벼가 빨리 자라도록(長) 도와주고(助) 왔지!” 아연실색한 가족들이 눈에 나가보았더니, 뿌리가 뽑힌 벼들은 이미 시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는 데에는 다 정해진 때가 있으니, 농부가 인위적으로 뽑아 올린다고 해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어 주기만 하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씨는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저절로 싹이 터서 자라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빨리 자라게 하려 억지를 쓰다보면, 오히려 그 싹은 뿌리가 뽑혀 말라죽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겨자씨를 땅에 뿌리고 잘 자

라도록 가꿀 사명을 부여받은 농부들이라 할 것입니다. 농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조장’이 아니라 ‘믿고 기다림’입니다. 싹이 터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영그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속도가 더디다 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하여 조바심을 내며 ‘조장’하려 하다보면,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 무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한해의 농사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듯,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논리에 속아, 하느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하느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만의 왕국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번 주부터 신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떠나 각 본당에 가서 신자분들과 더불어 지내게 됩니다. 이들이 긴 방학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기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양동성당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69

가양동성당은 1992년 9월 등촌1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강의 수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구암공원과 허가바위, 양천향교와 궁산 등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유적과 기념물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시가 가양동 일대를 택지 개발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989년 1월 가양동공소는 등촌1동 본당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성전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설립 인가를 받아 성전을 건축해 1993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2003년 2월 성전 신축 기공식을 거행하고, 2006년 9월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새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창동성당 가양동성당 삼성산성당

